

04 초등 학부모용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왜 중등에서 무너지나

조기 영어의 착시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그러면 헛것인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영어 사교육비가 **수학보다 많습니다** — 월 13.1만 원 대 12.8만 원 (2025 사교육비조사)
- ◆ 조기 영어로 잘 붙는 것과 **중등부터 재는 것** —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 ◆ 「무너졌다」의 실체 셋 · **남는 것(거부감 없음·듣는 귀)과 안 남는 것**
- ◆ **초3~4가 갈림길입니다** — 학년별로 무게를 옮기는 표와 점검표 여덟 가지

01 · 숫자부터

영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영어 유치원까지 보냈는데 중학교에서 무너졌습니다.」

드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보내신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기 영어로 얻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갈라 두면,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과목	1인당 월평균
영어	13.1만 원
수학	12.8만 원

영어가 수학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고등학교(63%)보다 높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영어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3 영어 보통학력 이상이 60.5%, 고2에서 72.8%입니다. 고2가 높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중간에 놓은 학생이 빠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로 「영어 유치원이 효과가 없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연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많이 쓰면 그만큼 남는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입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안 남는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리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영어 유치원의 효과를 직접 짚어 자료를 아닙니다 — 두 통계를 나란히 놓은 것이며 인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말하는 영어와 시험 보는 영어

조기 영어로 붙는 힘과 중등 이후에 재는 힘이 다릅니다. 둘 다 영어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조기 영어로 잘 붙는 것	중등부터 재는 것
무엇을	듣고 말하기 · 발음 · 거부감 없음	읽고 쓰기 · 문법 · 어휘
어떻게	많이 노출되면 붙습니다	따로 배워야 붙습니다
재는 법	대화가 되는가	지문을 정확히 읽었는가
남는가	안 쓰면 줄어듭니다	쌓이면 남습니다

「무너졌다」의 실체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가 중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 문법입니다. 말로 익힌 영어는 규칙을 몰라도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서」로 씁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험은 규칙을 묻습니다. 맞는 문장을 고를 수는 있는데 왜 맞는지 설명을 못 하면 조금만 꼬인 문제에서 흔들립니다.

둘 — 어휘의 결이 다릅니다. 생활 영어의 어휘와 학습·시험 영어의 어휘는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말은 유창한데 지문이 안 읽히는 상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 — 안 쓰면 줄어듭니다. 초등 고학년에 노출이 끊기면 듣고 말하는 힘부터 빠집니다. 그러면 「했던 것」은 줄고 「안 한 것」은 그대로인 채로 중학교를 맞습니다.

정리하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재는 자가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장은 저희 수업·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시 자료나 연구로 뒷받침되는 인과가 아닙니다.

03 · 그러면 헛것인가

남는 것과 안 남는 것

아닙니다.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남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다음 계획이 쉽니다.

남는 편	잘 안 남는 편
영어를 위한 거부감이 적은 것	어릴 때의 발음
듣는 귀 — 오래 갑니다	쓰지 않은 회화
영어로 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배운 표현 자체

왼쪽이 값이 큼니다. 특히 첫째 줄입니다. **영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중·고등 6년 내내 작동합니다.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은 그 과목을 피하다가 격차가 벌어지는데, 거부감이 없으면 그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 영어는 「**실력을 미리 쌓는 것**」 보다 「**문턱을 낮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중등에 필요한 것을 따로 쌓으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갈림길입니다

영어 유치원의 이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 붙이지 않으면 끊깁니다**. 초등 3~4학년쯤부터 **읽기와 어휘**로 무게를 옮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회화 수업을 계속 이어 가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아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재는 것은 그쪽이 아닙니다**. 회화를 유지하되 **읽기를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차례와 점검표

언제	무엇에 무게를	이건 아직
초1~2	듣기 · 거부감 없애기	문법 · 시험
초3~4	읽기로 무게를 옮깁니다 · 어휘	본격 문법
초5~6	문법의 뼈대 · 긴 글 읽기	수능 어휘
중1	시험 치는 법 · 서술형	—

초3~4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읽기로 옮기지 않으면 조기 영어의 이득이 중등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영어로 된 글을 혼자 읽는가 — 들려주는 것 말고
- ☐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는가
- ☐ 읽은 것을 우리말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문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규칙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영어로 써 본 적 이 있는가
- ☐ 영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 ☐ 노출이 끊기지 않았는가
- ☐ 회화만 하고 읽기는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와 넷째가 중등에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말은 되는데 이 둘이 안 되면 지금 손보셔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시작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쓴 돈을 아까워하며 같은 것을 계속 이어 가지 마십시오. 영어 유치원에 쓴 비용은 이미 지난 일이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같은 방식의 수업을 이어 가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얻은 것(거부감 없음·듣는 귀)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것(읽기·어휘·문법)을 새로 더하십시오. 그리고 읽기는 집에서도 많이 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지금이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저희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효과를 직접 켜 믿을 만한 공개 자료가 저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말하는 쪽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다만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 영어로 잘 붙는 것은 듣기와 거부감 없애기입니다. 이 둘은 영어 유치원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 꾸준한 노출이면 됩니다. 영상, 책, 짧은 대화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물음은 「영어 유치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만한 비용을 들일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그 이유만으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중등 이후에 재는 것은 그때 따로 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문법은 언제부터 하나요?

초5~6 무렵이 무난합니다. 다만 「문법책을 푸는 것」과 다릅니다.

너무 이르면 규칙만 외우고 뜻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영어가 아니라 문법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시작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왜 여기는 이렇게 써요?」라고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읽는 양이 쌓이면 규칙이 궁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설명하면 잘 붙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읽기가 먼저, 문법이 나중입니다. 읽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문법을 하면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조기 영어가 만드는 것은 실력의 선행이 아니라 문턱의 낮춤입니다. 초3~4에 읽기로 이어 붙이면 그 값이 중등까지 갑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입니다. 영어 유치원의 효과를 직접 켜 자료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내용은 저희 수업·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이나 특정 선택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